

광주 '백색가전'·전남 '농수산물' 5월 수출 호조 견인

수출액 55.6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 6.6% 늘어 11.4억 달러 흑자로 2개월 연속 10억불 이상 흑자 석유제품 17% 늘고 자동차·반도체·이차전지 감소

지난달 김과 미역, 쌀 등 전남 농림수산물의 수출액이 한달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광주에서는 'AI' 기반의 냉장고와 세탁기의 수출 호조로, 광주·전남은 무역수지 1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10억불 이상 흑자를 이어갔다. 19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5월 광주·전남 수출액은 55.6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52.1억달러)보다 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전년 같은 달보다 1.2억달러 줄어든 14.3

억달러, 전남은 4.7억 달러 증가한 41.3억달러를 해외에 팔았다. 특히 전남에서는 지난달 역대 최고 수출액(0.79억달러)을 기록한 김과 미역, 등 농림수산물 이 한달만에 또다시 0.82억달러 수출액으로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농림수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보다 1.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K-푸드'의 선두주자 격인 김은 전년 같은 달보다 72.75% 늘어난 1490만달러를, 미역은 124만

달러(26.3% ↑), 톳은 173만달러(130.22% ↑), 쌀은 1589만달러(1227.8% ↑) 수출액을 기록했다. 전남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수출 단가 개선 효과가 두달째 이어졌다. 석유제품은 전년 같은 달보다 16.9%, 석유화학제품은 13.9% 증가율을 나타냈다. 선박도 버뮤다와 라이베리아로 수출액이 42.5% 늘어났다. 다만, 수출 3대 품목 중 하나인 철강관의 경우, 글로벌 시장 부진과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 등의 이유로 전년 같은 달보다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가별 수출 상황은 호주를 제외한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광주는 '효자'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액은 감소했지만, 냉장고와 세탁기의 호조세가 두드러졌다. 자동차는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한 5.8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협회는 미국과 호주 수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멕시코로의 수출이 부진한 것(-42.7%)이 전체 수출 감소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도체의 경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비메모리 수요가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무역협회 설명이다. 이차전지 수출도,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단가 약세 등을 이유로 2개월 연속 60% 이상 감소했다. 반면 가전제품은 늘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 등에서 생산하는 'AI' 기반의 프리미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미국으로 불티나게 팔려갔다.

냉장고의 경우 전년 같은 달 보다 34% 증가한 1억달러, 세탁기는 무려 3311.1% 증가한 1169만달러, 에어컨도 725만달러(5.8% ↑)를 기록했다. 지자체별 수출 순위에서 전남이 17개 시도 가운데 6위, 광주가 10위로 전남과 비교해 변동은 없었다. 전남의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12.7%, 광주는 -7.7%를 기록했다. 아울러 국내 수출에서 전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7.1%로 전남보다 0.2%p 늘었고, 광주는 전남과 같은 2.5%였다. 광주·전남 수입액은 44.2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42.8억달러)에 견줘 3.4% 늘었다. 광주의 수입액은 작년 5월(6.9억달러)보다 12.5% 감소한 6.1억달러였고, 전남이 전년(35.8억달러) 보다 6.5% 늘어난 38.2억달러를 기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난해 경영실적 대부분 '양호'

한전KPS 유일한 '우수' 등급 '양호' 4개·'보통' 2개·'미흡' 1개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경영실적이 대부분 '양호' 판단을 받았다. 한전KPS가 유일한 'A' (우수) 등급이었고, 대부분 '양호' (B)·'보통' (C) 등급을 맞은 가운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만이 '미흡' (D)을 기록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에 포함된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8개 기관은 '우수' 등급 1개, '양호' 등급 4개, '보통' 등급 2개, '미흡' 등급

1개를 맞았다. 기재부는 지난 2월 각계 전문가 100명으로 이뤄진 평가단을 구성하고, 현장실사, 이의제기, 외부검증 등 4개월 간 평가과정을 거쳐 이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최종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한전KPS는 지난해 진행한 바리카 원전 정비 사업의 성공적 수행 및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3.9%p 오른 13%를 기록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이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 한편은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총부채가 200조원을 웃도는 등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 흑자전환하면서 적자폭을 크게 개선해 '양호' 등급을 받았다. 다만, 기재부는 한전 및 발전회사 7곳은 지난해 발생한 당기순손실과 관련해 재정악화가 됐다는 점에서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50% 삭감하는 추가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한전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현재까지 기관장이 재임 중인 기관으로, 경고조치를 받게 됐다. 기재부는 두 기관에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한전KDN과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는 '보통' 등급을 받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미흡' 등급을 획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해양에너지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전달

해양에너지는 지난 18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열린 '장학기금 기탁식'에서 (재)특수장학회에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을 위한 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재)특수장학회는 전국 유일의 소방관 자녀 지원 장학회로, 지난 1976년부터 매년 광주시 소방공무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탁된 장학금은 오는 12월 지급 대상으로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회사가 기탁한 장학금이 지역 인재 육성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해양에너지는 앞으로도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와 함께 안전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에너지는 지난 1974년 (재)특수장학회 설립허가 당시 2000만원 출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억 2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사랑의 1004' 성금 전달.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최근 농협 광주본부 대강당에서 '사랑의 1004운동'을 통해 모금된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성금 2700만원은 농업인 6명, 소아암어린이 15명 수술·치료비로 전된다. 이현호(오른쪽 두번째) 농협 광주본부장과 강기정(가운데) 광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성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갖는 모습. <농협 광주본부 제공>

1200명 미국·호주로...한국 부자 유출 세계 4위

중국·영국·인도 등 '엑소더스'

세계적으로 고액 자산가들의 이주가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한국의 부자 순유출 규모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업체인 헨리 앤 파트너스는 1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년 헨리 개인 자산 이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헨리 앤 파트너스는 자산정보업체 뉴월드웍스의 자료를 인용해 고액자산보유자(HNWI) 국가별 유입·유출 전망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고액자산보유자 유출입은 유동성 투자 가능 자산을 미화 100만달러(약 13억8000만원) 이상 보유한 부자들이 타국에서 6개월 이상 머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 /연합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액자산보유자 순 유출은 올해 1200명으로, 중국(1만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400명에서 2023년 800명으로 두배가 되며 7위로 올라섰고, 올해는 다시 50% 증가하며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부유층들이 향하는 곳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분석됐다. 한편, 한국은 고액자산보유자가 10만9600명으로 세계 15위로 분석됐다. 미국(549만2400명), 중국(86만2400명), 독일(80만6100명), 일본(75만4800명), 영국(60만2500명)이 상위 5위권이다. 한국의 1억달러 이상 자산가는 233명, 10억달러 이상 자산가는 24명으로 추산됐다. 한국의 고액자산보유자는 2013년 이후 10년간 28% 증가했다. /연합뉴스

'AI 총아' 엔비디아, MS·애플 제치고 세계 최고 기업 등극

시가총액 3조3350억달러

인공지능(AI) 칩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생성형 AI 붐을 타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엔비디아는 18일(현지시간)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이 3조3350억달러에 달해 마이크로소프트(3조3173억달러)와 애플(3조2859억달러)을 제치고 시총 1위에 올랐다. 1993년 엔비디아가 설립된 이후 31년 만에 최초로 쓴 기록이다. 엔비디아의 폭발적 성장이 시작된 것은 2022년

11월 말 오픈AI가 대화형 AI 챗봇 '챗GPT'를 공개하면서였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언어 모델을 훈련하는 데 엔비디아의 GPU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날개가 달렸다. 엔비디아 주가는 2022년 말(액면분할 반영 14.6달러) 이후 이날까지 약 1년 반 동안 9배 넘게 상승했다. 1999년 기업공개(IPO)로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 25년간 엔비디아 주식의 수익률은 재무지표 배당금을 포함해 무려 59만1078%에 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엔비디아는 현재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AI 칩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AI 모델을 개발 중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들의 AI 칩 수요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세계 각국 정부들이 정보·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면서 AI 칩 수요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주가 상승에 따라 헨스 CEO는 포브스 집계 기준 순자산이 약 1170억달러(약 161조 6000억원)로 늘면서 세계 부자 순위 1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나주이화신협 취약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나주이화신협(이사장 김광식)은 최근 나주시 성북동 일대 취약 아동·청소년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신협 행복한 집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행복한집 프로젝트'는 아동·청소년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신협사회공헌재단의 후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협력으로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42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식 나주이화신협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봉사활동을 함께 했으며, 집안 내·외부 청소와 LED전등 교체, 벽지, 장판 도배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는 친환경 소재로 습도 조절, 유해물질 저감, 곰팡이 방지, 탈취 등에 효과적이고 신협 지역특화사업과도 연계 중인 전주한지 벽지와 장판을 사용했다. 김광식 이사장은 "우리 지역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우리 나주이화신협 임



직원들이 힘이 될 수 있음에 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넓은 등이 되어 어부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산단공 광주본부 산업단지 디지털 혁신 포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는 19일 '2024년 디지털 제조혁신 3E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자율형(6개)·디지털(2개) 미니클러스터 회사 120여명을 대상으로, 3E(E-mobility·Electricity·Energy)를 주제로 지역산업 동향과 정부정책 대응과 기업지원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럼은 지역의 미래산업인 전기차와 관련해,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소부장 특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미래 전력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산업단지 디지털·무탄소 실현을 위한 에너지 기술 연구와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황상현 광주지역본부장은 "스마트그린산단 구현, 노후산단 구조조도와화사업 추진 등 산업단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단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산업단지 길러주기 해소와 기업 투자지원에 노력하여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해 산업단지와 광주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97.33(+33.41)
↑ 코스닥	861.17(+2.22)
↓ 금리(국고채 3년)	3.162(-0.052)
↑ 환율(USD)	1381.80(+0.70)